

여행상품

광산구·고려인마을, '골목여행' 운영

'중앙아시아·문화 체험' 어린이·학생·외국인 등 대상별 코스 오는 11월까지 1천600명 추진...참가비 1인당 9천900원

강제 이주의 역사가 깃든 광주 고려인 마을을 탐방하며 문화 체험 등을 즐기는 여행 상품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일 고려인마을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와 함께 추진하는 '고려인마을 골목여행'이 이날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고려인마을 골목여행은 강제 이주, 항일운동,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해체, 귀환, 이주민 사회 형성 등 근현대사의 격동과 애환이 서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체험 상품으로, 고려인마을과 광산구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마을 1번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탐방 코스는 ▲어린이 동반 ▲학생 단체 ▲성인 ▲외국인 등 대상별 코스 4개와 야의 미션 '독립자금을 전하리'로 구성된 특별 코스 1개로 짜여졌다. 코스별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의복 체험', '마을 문화관 해설 투어', '중앙아시아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9천900원이다. 중앙아시아식단의 한 끼 식사, 여행자 보험, 고려인마을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참가 신청 및 코스별 진행 일정은 월곡고려인문화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고려인마을과 광산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총 1천600명을 대상으로 골목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역사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누적 관광객 1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상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골목 곳곳을 직접 걷고 보고 느끼며 광주에서 중앙아시아 문화와 고려인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광주 광산구 월곡2동 다모아어린이공원(홍법도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인마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한인 후손 7천여명이 모여 산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전쟁 난민 일부도 머물고 있다.

/안재영기자



“한 끼 나누며 이웃 안부도 챙겨요”

광산구 신가동, 월 1회 '안녕하신가 전원밥상' 시작

단돈 '천원'으로 돌봄 이웃에게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며 안부까지 확인하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안녕하신가 전원밥상'이 시작됐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신가동 식당 '청해진의 꿈'에서 지역 내 돌봄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안녕하신가 전원밥상'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산구는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점심 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천원한끼' 사업을 추진 지난 5월 우산동, 7월 도산동에 식당을 개소했다.

1회 시작은 '신가동 풍영정을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예산 지원과 함께 자원 봉사를 도맡았으며 직접 빚은 송편도 돌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신가동은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 및 골목상권의 참

여확대를 건인할 계획이다.

또 거둔 식사비를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기부하는 등 '나눔의 선순환'에도 힘쓸 방침이다.

박세경 신가동장은 "돌봄 이웃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밥상 나눔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신가동'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각 동의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송정 1동 '천원밥상', 침단 1동 '선한식당', 침단2동 '진짜밥상', 송정2동 '송2송2 밥상친구', 수완동 '수완 있는 반가운 찬' 등 다양한 밥상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윤근기자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광주 서구는 1일 "지난달 30일 서구 문화센터 2층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 역량을 강화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1차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 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2차 교육에서는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졌다.

/주성학기자



충장축제 중국관광객 유치 MOU 광주 동구는 지난달 30일 청사 접견실에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여행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동구 제공>

'문화 사랑방' 자리 잡은 남구 효천도서관

개관 1년간 16만여명 방문...독서·도서 대출 속 특화사업도 한몫

개관 1년을 맞은 광주 남구 효천어울림도서관(사진)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개관 1년이 되는 이날 기준 연간 누적 이용자가 16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8월까지 방문 주민은 총 16만 1천 226명으로 이 중 5만 2천 289명은 지난해 9-12월, 나머지 10만 9천 937명은

올해 1-8월 사이 방문했다.

방문객 중 95.9% (15만 4천 744명)는 자료실에서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 찾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중 3천 982명은 생태환경 특화 강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2천 540명은 회원 등록을 위해 찾아왔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효천어울림도서관이 관내



'문화 활동 거점'으로 안착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도서관 특화 사업인 ▲우리 동네 생태 숲 탐험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 ▲환경생태 특강 등도 방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서문화 진흥 행사와 독서 동아리 등을 지속 운영하고 도서 확충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독서 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특화 도서 코너를 비롯해 야간 자료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동구, 추석 맞이 '소외 이웃돕기' 추진

6천200만원 상당 현금·온누리상품권 전달 등

광주 동구는 1일 "오는 13일까지 '2024년 추석 명절 맞이 소외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천 700만원을 건네받은 동구는 자체 사업비 2천 500만원을 더해 총 6천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추석 위문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돌봄 이웃 74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60개소, 8개 공법 보훈단체다. 이와 함께 관내 13개 동 지역사회

회보장협의체도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나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해 실제 지원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정겹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